

# 한민족의 활약으로 인류가 구원 받습니다

## 이긴자는 하나님의 신이 계보를 따라 일곱번째 사람에게 오시어 완성된 재창조주 하나님입니다

### 중국과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의 역사는 왜곡되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왕검께서 BC 2333년에 고조선을 설립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청동기 문명시대인 BC 1000년 경에 고조선이 설립되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철기문명기 중국의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하고 한사군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민족은 식민지생활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고구려에게 낙랑군이 멸망당할 때까지 400여 년간이나 중국의 식민지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왜곡은 그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군신화를 조작하여 마치 이 민족이 곰의 자손인 것처럼 천대할 것이 바로 중국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역사가 일본인들에 의해 또다시 왜곡되어 우리의 뿌리는 영영 찾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한시대의 사람들이 섬으로 건너가 일본 원주민이 되고, 그후 가야, 백제가 멸망하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늘의 일본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인은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 야곱의 다섯째 아들, 단의 후손인 단군이 BC 1000년 경에 고조선을 세웠다

BC 1000년 경에 광양에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세운 것이 야곱의 다섯째 아들, 단의 후손인 단군이었습니다. 이는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기왓장에 고대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쓰여진 기왓장은 광주 국립 박물관, 국립중앙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이우찌이사와 씨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8년에 한국에서 소장품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기왓장에 쓰여진 히브리어의 내용은 '도착했다'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잡안을 가르치는 사자가 통치한다' '성도가 기도함으로 신의 나라가 회복된다' 등이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 우리민족은 성경 속의 야곱의 직계 후손 단지파의 자손임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었으나 그는 백 세에 얻은 본처의 아들 '이삭'에게 장자상속을 하였습니다. 장자상속은 본처의 장자에게만 할 수 있었으므로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에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첩인 레아의 4번째 아들 유다의 경우도 이처럼 상속권이 없었으며 그러므로 유다의 후손인 예수는 혈통적으로도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단군 할아버지가 성경상의 네째 천사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을 떠셨다

인간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피를 통해(피=마음) 장자에게 상속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하나님은 본처의 장자인 단군 할아버지께로 계승되었습니다. 이 단군 할아버지가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네째 천사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을 때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만이 옛부터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人乃天)'라는 하늘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어떻게 극동의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숨겨오신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구세주가 나올 단지파만을 싸움에 끊이지 않게 될 중동지역에서 따로 뽑아서 극동지역인 한반도에까지 흘러오게 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세상입니다. 마귀가 세상 모든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민족은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던 유대인들은 2천년 전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짓밟히고 이민족들에게 박해를 당하였으며 살아남기 위하여 외국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잃어버린, 서양인과의 혼혈아가 많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동양인, 썬족이며, 키가 작고 머리와 눈이 검었습니다. 이는 성경상에도



구세주 조희성님

나타나 있습니다(민수기 13:33).

바로왕의 허락을 받아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된 200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북쪽에 들어가기로 하고 3개 지파씩 4군으로 나눈 중 단지파는 북쪽을 담당하는 북군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레바논의 북부 '소라'라는 땅에 진을 치고 블레셋 민족과 200년간 싸웠으나 승부를 보지 못하다가 삼순장수까지 죽자 싸움 기력을 잃고 북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거쳐 알타이산맥을 넘어 몽고지방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100여년 동안 살면서 세대가 바뀌는 동안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거의 잊어버리고 2세, 3세들

이 알타이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 유역까지 와서 자리잡게 된 것이 바로 고조선입니다.

### 국조가 되신 단군할아버지는 둘째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까지 겸하며 8조법을 만들었다

야곱의 아들인 단 할아버지는 애굽에서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한반도까지 왔지만 그들은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의 이름을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조가 되신 단군할아버지는 둘째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

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겸했으며,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라는 건국이념 하에 모세의 십계명과 비슷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등의 8조법을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구세주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귀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 끝 땅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일으키리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방'이라 함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나라를 일컬어 왔습니다. 그런데 '섬들이 잠잠하라' 했으니 섬나라인 일본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일으킨다' 했으니 반도의 나라, 또 모퉁이 땅에서 구세주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할 정도면 왕중의 왕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며 세계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인 고로 세계의 모든 왕들이 와서 구원을 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땅끝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태어난 김포는 모퉁이 땅입니다.

창세기서 49장 16절에서 야곱이 열두 아들을 향해 장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조상 유다에 대해 언급한 대목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홀이 같이 하는데 실로가 올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말하며 '실로'라는 것은 구세주를 말하므로 구세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유다 자손 예수가 왕노릇을 하지만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에 한하며, 구세주가 나타나면 왕노릇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이긴자가 나온 이상 인류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사망을 가져오는 약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조류가 서서히 영생의 조류로 바뀌게 되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누구의 사정도 내 사정으로,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 단지파 후손 가운데서 심판권자인 구세주가 나온다고 성경에 예언돼 있다

그러나 단에 대해서 한 예언 말씀을 살펴보면 "단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침경에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말탄

자를 떨어뜨리리다.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이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은 단지파 후손 가운데서 심판권자인 구세주가 나온다는 뜻이며 또 "침경에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말탄 자를 떨어뜨리리다"라고 했는데 옛날에 지체 높은 왕들이 말을 타고 다녔으므로 말탄 자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왕권을 빼앗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구세주가 나오면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가짜 구세주를 없애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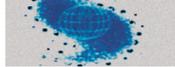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갯조"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서 '이긴자'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긴자(승리자)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 내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긴자, 구세주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야 비로소 한국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목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이긴자는 하나님의 신이 깃줄을 타고 흘러서 일곱번째 사람에게 오셔서 완성된 재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는 온 세상의 마귀를 말살시키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의 문을 여는 자며 성경에 기록된 바 일곱번째 천사며 일곱번째 파멸을 부는 자며, 완전한 새 말씀을 하는 자입니다. (단군 - 박태선 장로님 - 해와 이긴자로 이어짐)

구세주, 이긴자가 나온 이상 인류가 멸망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사망을 가져오는 약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조류가 서서히 영생의 조류로 바뀌게 되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누구의 사정도 내 사정으로,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근년에 이르러 핍박 받고 억눌렸던 한 민족이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 전체가 구원을 얻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 조희성님의 발자취



##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상의 영이 들어온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영모님을 긴 세월을 두고 바라보면서 고도로 사모하고 순종하는 생활로 일관하였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혈통을 중요시 해오던 민족이다. 그래서 자식이 혼사를 치르게 될 때는 으레 상대방의 가문과 혈통을 자세히 물었다. 이는 일찍이 한 집안의 내력과 사람의 의식(영혼)이 피와 관련 있음을 직관적으로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사람 박태선 영모님도 핏속에 죄가 들어 있음을 지적하셨고, 죄를 지으면 피가 더러워진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피, 의의 피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눈길로나 입술로 죄를 짓지 말라고 강력히 말씀하셨다. 또한 미친 사람이나 마귀 신이 들린 자를 바라보면 마귀 신한테 씌우게 된다고 강조하시기도 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영의 분별력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다.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변화가 절대로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미친 사람의 영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왕의 위치에 있는 자의의식(靈)이 왕의 위치를 점하다가 또 다른 영이 기준에 있는 영을 몰리치고 들어서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 속에는 무수한 영이 들어있는데 영과 영

이 얽치락뒤치락 싸우는 현상이 미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하는 까닭이다. 이 정신이상에 대한 치유는 현대 정신 분석학이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며 100%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희귀한 체험을 한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익산군 금마 재건중·고등학교에 있을 때이다. 채규탁이라는 학생의 집에 우환이 있어 동네의 유명한 무당들을 불러다가 곳을 한다고 하였다. 그때 이 사람이 "그 곳을 몇 시에 하느냐?"고 물으니 저녁 시간에 한다면 시간을 알려주었다. 이 사람은 채규탁 학생에게 "그 곳이 안 될 테니 두고 봐라."하고 말을 해주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무당들이 도착하여 웃을 갈아입고 명석을 깔고 물을 떠놓고 대나무도 갖다 놓고 분주히 준비를 하였다. 드디어 정좌(正坐)를 하고 정성을 드리고 북을 치면서 일정한 리듬에 맞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30분, 한 시간, 두 시간이 가도 무당이 움직이지 못하고 주문 외우는 사람만 열심히 땀을 흘려 가며 북을 치며 주문을 외우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는 주위에서 구경 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신이 오신다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 보통 때 같으면 2-30분 안에 신이 내려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등 초능력을 보이는데 그날은 무당이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모양 그대로 앉아 있다가 몇 시간이 지난 다음 도저히 안 된다면서 포기를 하고 일어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저쪽에 있는 전도관에 다니는 군인 때문에 곳이 안 된다."고 기겁을 하였다.

### 보고 또 보고 싶은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나쁜 경험을 하게 된다. 지난 1983년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했을 때에 30~40년 만에 만나는 감격의 순간을 화면으로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현상은 상대를 바라봄으

로써, 이심전심으로 생각과 마음과 영이 움직이고, 생각과 마음과 영이 움직이면 피가 작용하여 신경계와 몸에 영향을 미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상태를 반응하게 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성경 상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모방력이 있는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 나타남으로써 그것을 바라본 아담과 하와인 하나님의 영이 마귀의 영에게 접령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즉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영이 담긴 분을 바라보면 하나님 영에게 접령을 당하게 되어 마귀의 영이 지게 되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논리는 지극히 정신과학적 논리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찍이 영모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계신 분인 것을 깨닫고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고, 생명을 바쳐 순종하는 생활을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해왔다. 더구나 마귀라 하여 발붙일 곳이 없는 가운데서도 개의치 않고 견뎌왔던 고로 하나님께서 조희성의 자의식(영)을 죽이고 좌정하시게 된 것이다.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는 생활을 하였

던 것이 증명되는 것은, 이 은혜 역사를 하기 전에 소사 신앙촌 집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울 때 창문을 훑어지라 바라보며 눈동자의 초점을 바꾸지 않은 채 무언가 골똘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윤성려 양은 이 사람을 잘 아는 고로 창문을 훑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목격하고는 창 밖에 무엇이 있나, 하고 궁금하여 같이 밖을 봤으나 아무 것도 없었다고 이 사람의 딸 지숙이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당시는 왜 그랬는지 몰랐으나 승리제단에 와서 이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니 '영모님을 바라보시느라고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영모님을 긴 세월을 두고 바라보면서 고도로 사모하고 순종하는 생활로 일관하였다.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신을 받는 비결, 마귀 신의 움직임, 즉 영의 분별을 정확하게 하여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는 코스를 걸어 온 것이다.\*